

# 타르 피해민 생활자금 저리 융자

## ■ 영광·무안·신안 특별재난지역 선포 어떤 혜택 받나 소득·법인세 등 납부 9개월 연장

충남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사고로 타르 덩어리가 유입돼 피해를 입은 영광, 무안, 신안 등 3개 군이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정부로부터 행정·재정·의료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행정·재정·금융·의료 활동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되며 작·간접 피해를 입은 주민, 관련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세제·금융·의료 지원등도 이뤄진다.

또 해양경찰 등 방제당국이 실시하고 있는 방제장비·물자·인력 등 동원체제가 가동, 지원되며 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도 지원된다.

기름유출로 인한 개별 어민 피해는 특

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직접적인 지원 대상이 아닌 만큼 사고 발생 책임이 가려진 뒤 보험 등을 통해 보상을 받게 된다. 전남 도는 이에 따라 어민들이 중심이 된 '피해대책위원회'가 원유선 선사 소속 보험사와 공동 조사를 벌여 피해를 확정된 뒤 배상을 청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금융지원의 경우 ▲농수협을 통한 특별 영어자금·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기존 대출금 원금 만기연장 및 이자납입 우대 등이 이뤄진다.

세제지원으로는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 국제 납부기한 9개월 연장, 30% 이상 재산 피해자에 대한 세급 감면, 재해로 파손된 집 등 건축물 대체 취득시 취득·등록세 등 지방세 면제 ▲주민건강보

험료 30~50% 감감 및 국민연금 6개월 징수유예가 있다. 피해지역 주민 유·초·중·고교생 수업료, 급식비 지원 등도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본부장 정경원)도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남 영광·무안·신안군에 구호우편물 무료배달, 온라인 송금수수료 면제 및 보험료 납부유예 등의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피해 지역 수협과 어업인 중심으로 구성된 '피해대책위원회'가 원유선 선사 소속 보험회사와 합동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피해를 확정된 뒤 협상을 통해 배상을 청구하게 된다.

이날 현재 전남도가 집계한 수산피해 면적은 2만2천200ha에 이르고 해수욕장 등 해안피해가 118km가 발생했으며 연인원 6만여명이 동원돼 1천500여의 타르 덩어리를 수거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한국 대학생 강승현 세계 슈퍼모델 1위 동양인으로 최초

한국인 대학생 강승현(21·사진)이 세계 양대 모델 에이전시 중 하나인 포드모델사가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연 세계 슈퍼모델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이변을 낳았다.

25년 역사의 이 슈퍼모델 대회에서 동양인이 우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동력여대 모델과에 재학 중인 강승현은 세계 49개국 대표들과 당당히 겨뤄 대망의 우승을 차지, 한국인 첫 '포드 슈퍼모델'이 됐다.

강승현은 옛날 표정과 동양적인 마스크로 대회 기간에 많은 패션, 광고 관계자들의 관심을 모았고 특히 화장품 회사인 메이블린에 참가자 중 4명만 선택해 촬영하는 행사에 뽑히는 등 인기가 높았다고 소속사인 CCH(씨) 밝혔다. 강승현은 25만 달러(약 2억3천700만 원)의 상금을 받고 앞으로 포드모델사에 소속돼 세계적 모델과 여계를 나란히 하며 활동하게 된다.

/연합뉴스

## 100만원 이상 벌금 피선거권 제한 합헌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선거법의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는 조항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조항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중대 재판관)는 이모씨가 "선거법으로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당선무효와 별개로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것은 이종처벌이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자 2004년 1월 피선거권 제한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19조1호 중 18조1항3호와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오후 서울 흥릉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열린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가수 박진영(맨오른쪽)씨 등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상암 DMC 의혹 '한독' 등 압수수색

## BBK 특검 ... 검, 김경준씨 보석 청구 기각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여러 의혹을 수사중인 정호영 특별검사가 우선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상암동 DMC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해 18일 전격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마포구 상암동 한독빌딩 내 ㈜한독산학협동단지과 양천구 목동 학교법인 진명정진학원 사무실, 한

독대표 겸 진명정진학원 이사장 윤모씨 등 관련자 3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학근 특검보는 "3팀(상암동 DMC 의혹 담당) 수사와 관련해 전날 저녁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늘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이른바 이번 주말부터 윤씨 등 관련자들

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상암동 DMC 의혹과 관련, 서울시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17일 제출 거부입장을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방 형사합의25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읍서널벤처스 자금 319억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으로 주식을세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경준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 삼성특검,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 소환

### 삼성관계자론 처음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별검사는 18일 성영목(52) 신라호텔 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전격 소환해 조사중이다. 특검팀이 출범 후 삼성 관계자를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 사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검은색

SM5 차를 타고 한남동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8층 조사실로 직행했으며, 삼성그룹측 변호인단의 조준웅 변호사가 동행했다.

성 사장은 이견회 회장 비서실 재무팀을 거쳐 삼성증권 경영기획팀장을 지내 그룹 내 자금 흐름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 개설 및 운용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혹

을 받아왔다. 한편, 삼성그룹측은 성 사장을 포함해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은 배호원(58) 삼성증권 사장과 민경춘(55) 삼성사회봉사단 전무, 전용배(46) 전라기획실 상무 등 계열사 임원 4~5명과 전라기획실 최모·김모 부장 등의 출석 일정을 이날 특검에 통보했다.

삼성 임원들은 매일 1~2명씩 순차적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실무자급 직원들도 나와 본격적인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 광주에 전국 최대 RPC 법인 탄생

### 지역내 14개 농협 공동 출자

광주지역 모든 농협이 공동출자한 전국 최대 규모의 통합 RPC(미국종합처리장) 법인이 탄생했다.

농협광주지역본부(본부장 신성수)는 18일 "광주지역 14개 전체 농협이 공동출자한 통합 RPC 법인인 '광주지역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이 17일 정기총회를 갖고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통합RPC법인은 이날 총회에서 ▲참여회원 출자 회차량 전량 수매 ▲고품질쌀 생산으로 광주쌀을 전국 으뜸 브랜드로 육성 ▲규모화를 통한 경영정상화 등을 이룰예정 것을 다짐

했다.

이번에 탄생한 이 법인은 대촌농협과 분량농협에서 각각 운영하던 2개의 RPC를 관내 14개 농협이 공동으로 인수·출자해 운영하며, 전국에서 농협 RPC에 공동 출자한 경우는 2~3곳 정도의 농협이 있을 뿐 이처럼 대규모 동참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협 광주본부 관계자는 " 그동안 RPC들이 영세해 기계 설비 등이 노후화 돼도 교체가 어려웠고 필요한 물량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갈수록 경영난이 악화됐다"며 "이번에 통합 법인 탄생으로 시너지 효과와 규모화가 가능해지면서 경영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ilee@

## 시설

### '문화중심도시조성위' 폐지 대안 뭐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 위원회 정비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인수위가 광주지역 최대 역점사업인 문화수도 조성사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무런 대안없이 문화중심도시조성위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 문화산업을 지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모든 역량을 모아가고 있는 지역민들의 염원과 소망을 저버리는 처사가기 때문이다.

문화중심도시조성위의 폐지는 문화수도 조성사업의 위상을 약화시킬 계를 보듯 뻔하다. 그동안 비교적 원활했던 정부 각 부처의 협조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높고 소요재원의 조달 등 사업 전반에 심각한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특히 문화중심도시추진기획단의 규모도 감축될 공산이 커 문화수도 조성

사업은 그 규모나 일정 등에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의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 조성위의 폐지는 보완 시스템을 만든 뒤 해도 늦지 않다. 문화수도조성사업이 분개도에 오를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폐지부터 결정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호남은 60년대부터 30여년에 걸친 역대 영남정권의 푸대접으로 낙후될 대로 낙후돼 있다. 이제 겨우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 미래 발전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는 데 이를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문화수도는 광주, 나아가 호남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사업이다. 새 정부는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 새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후퇴 안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키로 했다. 대신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자생력을 갖춘 인구 300만~500만명 규모의 광역경제권을 육성해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공장 총량제 등 수도권 외 각종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참여정부의 정책과는 확연히 대비된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걸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되 지방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건설 등을 추진해왔다.

새 정부의 접근법은 참여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다. 균형발전과 분권을 핵심 가치로 내세웠지만 조직과 정책 등이 중앙집권적으로 운영되는 등 실질적 분권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신도시 개발과 수도

권 집중현상의 심화에서 드러나듯 참여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한계를 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인수위가 균형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특별법까지 무력화시키는 것은 방법론의 차이를 넘어 새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한다. 광역경제권으로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한다지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까지 서두르고 있는 마당에 균형발전 의지가 퇴색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중앙의 각종 권한과 조직, 국제 등의 지방 이양은 바람직하다. 광역경제권을 만들어 국내외 기업이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을 뒤엎은 채 수도권 규제부터 완화하는 것은 지방 죽이기에 다름없다. 수도권 정책을 우선해선 비수도권의 반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 주가 한때 1700선 붕괴 국내 경제 파문 확산 우려

### 美 서브프라임모기지 영향

미국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종합주가지수가 18일 장종 한 때 1700선이 붕괴하고, 서브프라임 부실총액과 효과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등 국내·외 경제에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18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진행 상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대체로 올해 말까지 부실상황이 악화하다가 2009년쯤부터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미국 주택경기예 대한 전망과 금리조정 대상 서브프라임 모

기지의 예상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이같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세계적인 투자은행인 메릴린치가 지난해 4분기(10~12월)에 93년 역사상 최악인 98억3000만 달러(주당 12.01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17일(이하 현지시간) 밝히면서 금융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미국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고조되고 미국 주가가 폭락하면서 18일 오전 10시 코스피지수가 전날보다 25.70포인트(1.49%) 떨어진 1697.85를 기록, 장중 1700선이 붕괴하기도 했으나 전날에 비해 11.17포인트(0.65%) 오른 1,734.72로 마감했다.

/최희경기자 choice@kwangju.co.kr

## 광주·전남 휘발유 가격 상승폭 가장 커

국제 원유가격이 한 풀 꺾였지만 휘발유 등 연료 소매가격의 상승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휘발유 가격 상승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월 셋째주(14~18일) 전국 1천100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무연 보통 휘발유의 평균 가격이 1당 1천662.86원으로 전주 대비 15.71원의 상승폭을 보이며 사상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서울은 지난주보다 14.93원이 올라 1천

735.34원을 기록했고 경기(1,677.50원), 인천(1,675.96원), 제주(1,673.79원), 광주(1,673.77원) 등도 1천670원선을 넘어섰다.

특히 광주와 전남(1,658.13원)지역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다른 지역을 압도하는 각각 33.04원, 34.91원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경유가격도 1당 1,466.34원으로 전주보다 12.83원이 올라 역시 최고치였고 가장 높은 서울지역은 1,538.44원이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1
대표전화 2200-551		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경영지원국	2200-511
<대표 FAX>	222-4918	<F A X>	222-800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정리부	2200-616	여론대응부	2200-628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사회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F A X>	222-4267	조 사 부	2200-570
*구독료 월정 5,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빛의 만평

- 김중두



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